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논문, 'Tissue Engineering'지 표지로 채택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의 논문이 미국에서 간행되는 조직공학의 우수 저널 'Tissue Engineering'(IF:4.2) 2014년 10월호 표지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표지에 실린 사진은 만능 줄기세포(IPSC)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찍은 모습으로 논문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이번호에 실리게 되었다.

임균일 교수는 현재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재생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손상된 인체조직 및 장기복구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Tissue Engineering'은 1995년 조직공학 태동기에 미국에서 창간된 저널로 현재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TERMIS)의 공식학술지로 세계조직공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02 어~~라 ?? 유쾌한 화두와 함께 던진 지찬스님의 불교카툰 작품보시

카툰으로 소통하고 있는 지찬스님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위해 16일 'WHO AM I'와 '어라가득' 작품 2점을 재능기부했다. '어라'라는 작가명으로 더 유명한 지찬 스님은 불교카툰신문 '근근한 뉴스'를 창간하는 등 인기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관조하는 작품이다.

지찬 스님은 "앞으로 동국대학교병원에 카툰작품 108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후에는 요양병원, 복지관 등의 시설에 작품을 기부하여 카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유쾌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찬스님은 지난 5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배중훈, 김동범, 양경수 작가와 함께 환우를 위한 '만만한 카툰전'을 열어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03 진관사 국행수륙대재 의료지원 및 대외홍보활동 펼쳐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에 의료지원 부스 운영과 병원진료정보, 건강검진프로그램 안내 등에 대한 대외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의료지원은 한방내과 정승현 교수, 의료원 전략기획팀 김명숙 대외협력담당자가 참여하여 진관사 신도, 교계 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응급환자처치, 혈당, 혈압측정 등을 시행했다. 진관사는 일산한방병원과 사찰음식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외국인자 유치프로그램 등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사찰이다.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은 회향식에서 "시민들에게는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나눔을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는 의미 깊은 행사에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진관사 수륙재는 국행수륙재 실행의 중심 사찰로 불교 의례의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륙대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봉행되는 법석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통사찰 주간(Week)'행사의 일환으로 함께 열려 불자는 물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불자들과, 주한 외교사절 등 외국인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04 2014년 동국 기숙사의 날 개최

간호부는 병원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40여명의 신입간호사들을 격려하고 복돋아주기 위해 10월 10일 '동국기숙사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는 임지연, 임나현 두 신입간호사의 사회로 문을 열고 개성있는 본인소개를 하면서 푸짐한 삼겹살 파티를 즐겼다. 이후 이어진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여러 가지 게임으로 서로 친해졌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취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획득하는 등 신입간호사들은 행사 내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참석한 간호사는 "힘든 신입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여 오랫동안 이 병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부는 신입간호사들을 cheer up시키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동국 기숙사의 날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STORY

기억에 남을 아주 특별한 야유회

62병동 임하영



지난 10월 11일, 62병동은 신경과와 간호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야유회를 준비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 글램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숲속 텐트 안 모닥불 앞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꽃도 피우고, 자연을 벗 삼아 맛있게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일상에 지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모두들 잔디밭에 앉아 '도전! 인증제 골든벨'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 있을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한 실력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증제 골든벨이 시작되자, 모두들 실제 골든벨 문제를 푸는 것처럼 진지한 자세로 상금을 타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인증을 대비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였으나,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익힌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막상 문제를 접하니 생각 외로 헛갈리는 부분들이 많았고 아는 문제도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하나둘씩 모두 떨어지고 최후의 1인으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골든벨이 울리고 거액의 상금을 타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행복한 야유회였습니다. 이 기를 이어받아, 다가오는 12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우리병원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알 리 미

일산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10월 22일(수) 10:00~11:00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건강누리
강사 :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 주제 : 암을 예방하는 생활법

일산서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10월 23일(목) 10:00~11:00 | 장소 : 일산서구보건소 건강마루
강사 : 신경외과 김병철 교수 | 주제 : 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

식사동 어울림 모꼬지 행사 의료지원

일시 : 10월 25일(토) 11:00~18:00 | 장소 : 식사동 중앙공원 내